

**성경 본문** 이사야 43:14~21

**요절**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18-19절).

**찬송** 490장(통 542장,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나의 나그네 된 집에서 (박수진)

**이과의 목표** 우리 각자가 낯선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오면서 꾸어온 꿈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지니고 계신 꿈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한다.

## 🍃 I. 생각하기

- 당신이 지금까지 꿈꿔온 아메리칸 드림이 있다며 무엇인지 나누어 봅시다.
  - \* 공동체 식구 각자가 자신이 미국에 오게 된 이유나 한국에 귀국하지 않고 남게 된 이유가 “아메리칸 드림”과 어떤 관련을 가지는 지(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리고 지금 미국에 살면서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정직하게 나누어 보자. 인도자가 미국 생활에 대해 자신이 가졌던 꿈에 대해 먼저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꿈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 \*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졌는지 확인하는 질문이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해 마음에 품게 된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꿈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이전에 지녔던 세속적 가치관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따라 사는 자들이다.

## 🍃 II. 생각 넓히기

- “낯선 땅에 뿌리내린 희망”
- 미나리의 노래
-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꿈

## 🍃 III. 생각을 삶으로

- 하나님께서 당신을 미국 땅에 보내신 목적(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당신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이민자들은 미국 이민을 자신이 선택했다고 믿거나, 아니면 자신은 어쩔 수 없는 환경에 떠밀려 미국에 왔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교의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이민자는 낯선 나라 이방인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교사들이다.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말이다. 따라서 우리 이민자들은 이 낯선 땅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통해 이 이방 땅에서 이루실 새 일을 기대하며 살아야 한다. 이것을 위해 예수님과 같이 날마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눅 22:42)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고 실천해 나가는 훈련이 필요하다.

2. 하나님께서 미국 땅에 그리고 이 도시에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나누어 보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 소그룹이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나누어 봅시다.

\* 우리는 우리 교회가 속한 지역과 도시의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특별히 이 지역에 세우신 목적과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열방의 빛”으로 그리고 “광야의 꽃”으로 이 낯선 땅에 세우신 우리 교회는 이곳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소수 인종으로 구성된 우리 한인 교회를 통해 미국 땅에서 행하실 새 일도 꿈꿀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우리의 뜻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꿈이 될 것이다.

